



2 장마철 경사지 밭 토양유실, 맥주용 보리로 줄인다 | 4 농진청, '국산 밀 신규 우수 계통' 현장 평가회 개최 | 9 산림청, 집중호우 대비 임도 특별점검 실시 | 11 경남농기원, 일본 만감류 전문가 초청 교육 성료

농식품부, 농업·농촌 정상화 과제 30건 선정

청년농 지원 확대·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농기계 음주운전 규제 추진



▲ 농식품부 전경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서울 aT 센터에서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추진 TF' 회의를 열고 농업·농촌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1차 정상화 과제 30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TF 출범 이후 분야별 분과 운영, 실무공무원 워크숍, 국민제안 장구 운영 등을 통해 총 104건의 개선 과제를 발굴했으며, 이 가운데 시급성과 필요성이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농지 전수조사와 농업법인 실태조사, 구거부지 불법 점용·사용 실태조사를 추진해 위법행위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협의 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내부·외부 견제장치 확대와 선거제도 개편, 인사·조직 운영 개선도 추진한다.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부모 소유 농지와 시설을 임차해 영농하는 청년농도 독립영농으로 인정받아 영농 정착지원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광역시 자치구까지 확대하고, 배달앱과 포장재에 중부 적용되는 원산지 표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민박사업 운영 제도화와 실외사육견(마당개) 중성화 지원 방식 개선도 정상화 과제에 포함됐다. 특히 고령 반려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술 대상 동물의 이송 지원과 자원봉사자 참여 확대 방안이 검토된다. 국민 안전과 직결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관계 부처와 협력해 트랙터와 경운기 등 주행형 농업기계의 음주운전 금지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비료 과다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적정 시비 체계 정착과 액비 시비처방서 발급 절차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또 복지용 쌀 공급 체계를 기존 백미 중심에서 현미 등 다양한 품목을 포함하는 수요자 중심 방식으로 개편해 선택권을 확대할 방침이다.

부담이득 방식을 위한 관리체계도 강화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과정에서 브로커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전문기관 중심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실태 할당관세 물량이 실수요 업체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30개 과제 외에도 농업인 안전과 관계부처 협업 과제 등을 중심으로 추가 정상화 과제를 지속 발굴할 예정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국민 눈높이에서 불합리하거나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제도를 빠짐없이 찾아 개선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상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대경 기자
press@nonguptiontimes.com

농협경제지주, K-농산물 영토 확장 나서

5개 우수 수출농협 동참...아세안 넘어 세계로

농협경제지주(농협경제대표이사 김주양)는 26일부터 29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 국제식품박람회 '타이팩스-아누가 2026(THAIFEX-Anuga Asia 2026)'에 참가해 본격적인 아세안 시장 개척에 나섰다.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제식품박람회인 '타이팩스-아누가 2026'는 한국 농식품의 동남아 진출을 위한 핵심 교두보로 농협경제지주는 신선농산물과 가공식품을 전면에 내세운 통합홍보관을 운영한다.

특히 관람객을 겨냥한 크리 스피클, 인절미 과자 등 쌀가공식품 시식 행사와 전 세계 바이어를 대상 김스넵(장흥관산농협) 등 맞춤형 수출 상담을 진행하는 등 전방위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한국농협수출협의회 소속 5개 우수 수출농협(진주수곡·새김천·동읍·공덕·두원농협)은 이번 박람회에 참여해 현지 식품 소비 트렌드 분석, 경쟁 상품 동향 점검 등 현지 공략에 힘을 보탤다.

농협경제지주는 이번 박람회를 시작으로 아세안시장의 농협 농식품에 대한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를 확고히 구축하고자 한다.

김태영 기자
ktya0712@daum.net



▲ 타이팩스-아누가 2026(농협 제국)

농진청, 'CA 수출·품질관리' 프로그램 공개

20개 품목 선박 수출 조건 한눈에 혼합 선적 여부·품질관리 정보 제공

농촌진흥청이 신선 농산물의 선박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품목별 시에이(CA-Controlled Atmosphere) 수출 조건과 품질관리 정보를 통합한 '원예작물 CA 수출·품질관리'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농진청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누리집을 통해 해당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CA 기술은 수송 컨테이너 내부의 산소 농도를 낮추고 이산화탄소 농도를 조절해 농산물의 호흡과 품질 저하를 억제하는 선도 유지 기술로, 장거리 선박 운송에서도 신선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개국에서 베트남·싱가포르·태국 등을 포함한 11개국으로 늘었다.

기술 지원 건수는 2022년 29건, 2023년 71건, 2024년 88건으로 증가해 2025년 기준 누적 250건을 기록했다.

특히 참외의 경우 예비 냉장과 포장 기술을 결합한 품질관리 체계를 적용해 싱가포르 선박 수출에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손실률은 기존 일반 선박 수송 시 25~40%

수준에서 1% 이하로 낮췄고, 물류비는 항공 운송 대비 40~60%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 공개된 프로그램은 수출 품목과 시기, 수출 국가, 예상 운송 기간 등을 입력하면 작물별 적정 온도와 산소·이산화탄소 농도, 적재 순서, 품질관리 방법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프로그램이 생산자 단체와 수출업체의 품질관리 역량을 높이고, 소량·다품목 K-농산물의 혼합 선적을 지원해 선박 수출 확대와 물류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CA선박기술 적용 싱가포르 수출 참외 현지 도착 사진

국내 최고의 고객경험을 제공하는
융복합 농업솔루션 제공자

대파밭 광엽잡초 전문 제초제

파레트

파레트

까마중

명아주

머저귀

털별꽃아재비

원예용 제초제 - 유제

파레트

- 01 대파에 등록된 유일한 광엽잡초 경엽처리 제초제
- 02 대파 뿌리에 영향 없는 안전한 경엽처리 제초제
- 03 광엽잡초(미국나팔꽃, 털비름, 둥근잎유홍초 등)에 대한 방제효과가 우수하며, 빠른 효과 발현

적용대상 : [파] 일년생 광엽잡초

- 사용 전에 표기내용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 어린이 손이 닿는 곳에 놓거나 보관하지 마십시오.
- 표기내용 표기사항 이외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 안전사용기준을 잘 지켜 우수농산물을 생산하십시오.
- 농약을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농약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직불금 수령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상담전화
1899-0584

경농 카카오톡 친구추가

그 결과 수출 품목은 딸기와 참외 중심에서 포도, 멜론, 수박, 고구마 등으로 확대됐고, 수출 대상국도 일본·홍콩 등 5